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기대는 가졌지만 시선은 다른 선수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 스물셋 남긴 신세대들이 '사고'를 쳤다. 보란 듯이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과격의 질주요, 아름다운 반란이었다. 한 순간에 스피드 스케이팅을 최고의 관심 종목으로 끌어올렸다. 쇼트트랙에서도 명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인 '빙속(氷速) 남녀'의 쾌속 질주를 세계가 속속이며 지켜보고 있다.

표팀은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에서 단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순항하고 있다. 모태범과 이상화는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빙속 500m

신세대 '국가대표'들의 DNA

동반 우승의 대기록을 세우며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정수는 쇼트트랙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한국 빙상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이들 빙속 3총사는 88올림픽을 전후해 태어난 스물 한 살의 동갑내기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기성세대와 달리 좋아하는 일이라면 미친 듯이 빠져드는 신세대다. 누군가 떠밀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운동이니만큼 그 자체를 즐긴다. 모태범은 남자 500m에서 사상 첫 금메

달을 딛 수 확보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뒤집어쓰고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덩실덩실 춤을 쳤다. 시상식 후엔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난다"며 웃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쏟던 신배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명랑소녀 하나' 이상화는 출국 직전 자신의 경기가 펼쳐질 날짜(16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인생역전'이라고 썼다. 미니홈피에는 '금메달 다 내꺼'라는 문구를 올려놓았다. 신세대다운 자기 암시다. 내적 동기가 강하다보니 세계적 선수들

역기 들기 같은 지옥훈련은 기본이었다. 신배들이 전수한 '날뎁기' '날차기', '바깥돌기' 등 명품기술도 빛을 발했다. 한국인 특유의 '도구 응용력'에 더해 공동체의식과 자율성의 조화가 비결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일부에선 이들 신세대가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자아실현 욕구가 크고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졌다하여 'G(Global)세대'라고 부른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희망' 세대다. 하지만 나란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들 신세대의 현실은 암울하다. 화려한 스펙은 국가대표급이지만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받아들일 곳이 없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이구백(20대 90%가 백수)'에 이어 '청년실신(졸업 후엔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까지 넘치는 신조어가 세태를 웅변한다. 청년실업은 가장 광범하게 일할 나이에 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올림픽에서 보여준 신세대들의 터질 듯한 에너지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경제부장> who@kwangju.co.kr

일체감 심어준 태극전사들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폭발적인 힘과 열정은 어디서 샘솟는 것일까. 얼음장 같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세종시와 4대강 논란으로 사분오열됐던 국민들은 실로 오랜만에 일체감을 맛보며 '스피드 코리아' 신화 창조에 비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

과 경쟁에도 주눅 들지 않는다. '경기는 경기일 뿐'이라며 거침없이 맞선다. 동로키라도 양보해 준다. 2002년 월드컵 4강진화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우승 등 스포츠계의 잇단 쾌거도 이들의 땀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미국·유럽의 텃밭이었던 수영과 피겨에서 박태환과 김연아의 성공, LPG무대를 누비는 신지애의 활약도 마찬가지다.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들의 성장이 물론 거저 주어지지 아니었다. 타이어 끌기, 산악자전거, 앉은 채

시 설

민주당 '배심원제' 공정성이 관건이다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텃밭인 호남에서 공천개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그동안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결집해 반영하지 못한 고질적인 공천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과거 지방선거에서 낙산산식 공천으로 지역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며 지역발전 전제 도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손쉽게 당선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지난 민선 4기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0여 곳의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하거나 재판에 연루돼 행정공백을 빚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

아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국민 경선제, 여론조사 반영 등 후보자 결정 방식의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조직적 동원' '하향식 공천' 등 폐단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도 선정 과정이나 배심원들이 특정 정적인 및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심원의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 난제를 풀어야만 주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 정치의 골격이 조화된 진정한 공천개혁으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권자 지지를 끌어내는 수단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분쟁 조정보다 갈등 조장하는 사분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조선평결원이사 선임 과정에서 구 재단측에 손을 들어줘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사분위는 이달 초 구 재단이 추천한 주광일 변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22일에도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추가로 선임해 대학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인사의 편입에 따라 조선평결원이사 9명 가운데 박철용 전 총장의 딸과 주씨, 정씨 등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는 5명에 달해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한 셈이다. 조선평결원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은 이를 우려해 결원이사 선임권을 대학 이사회로 넘겨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최근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분위가 과거 비리에 연루되거나 학내 분규의 빌미를 제공했던 구 재단 측 추천 인사로 밀어붙

인 것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일주일 후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사회가 소집될 지도 의문이다. 지난 1월1일자 정이사 7명으로 출범한 이사회가 교직원과 학생, 동문들의 반대로 여러차례 학교에서 회의를 하지 못하고 호텔 등지로 전전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사운영 등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가 23일 9명으로 돼 있는 이사회 정수를 2명 더 늘려 총장을 당선직으로 하고 1명은 학교관계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썩수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조선평결원에 대해 22년 만에 관선이사 체제로 정이사 체제로 바로 잡자는 것은 대학의 정상화와 안정에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주광일씨와 정순영씨에 대한 이사 선임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현명한 처신을 바란다.

기고

박만호



마그네슘은 비중이 철강재의 25%, 알루미늄의 70%에 불과하여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가벼운 비행기 제작을 위해 수출을 금지할 만큼 중요한 금속 소재로서, 가장 가볍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마그네슘은 '가볍고, 작고, 튼튼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핸드폰, 카메라 케이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스포츠 레저용품, 우주항공, 군수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을 대체할 금속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

2006년 8월에 작곡된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이듬해 7월 준공하여 3C (Communication, Computer, Camera) 용 부품용 판재를 연간 3천 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PDA,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전자부품 케이스나 단조부품 생산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자동차용 광폭판재 생산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가 설립한 '전남도 신소재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에서는 마그

신 성장동력 '순천 마그네슘 판재산업'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박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이점을 살려 마그네슘 판재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험을 쏟아냈다. 전남도에서는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 해룡산단에 유치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남도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유치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공장부지 확보, 도로개설, 민원해결 등을 전담토록 하고, 특히 포스코 관계자들과 주기적인 협의회를 갖고 공장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사실상, 마그네슘판재공장 순천 유치를 여러 가지 여건에서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에 비해 불리했다. 하지만, 후속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용기가 되어 도지사님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순천시의 필요한 부지 적지제공, 전남도 신소재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의 기술개발 지원 등 너나 할 것 없이 벌였고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 국내최초의 순천 마그네슘판재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네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8년 10월 마그네슘 시험생산장비 및 분석장비를 갖춘 시험생산동을 건립하여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5월에는 세계최대 마그네슘 원료 생산지인 중국 산시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마그네슘 원자재 안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전남 동부권 마그네슘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전남도는 작년 8월에 자진거신구 투자기업을 해룡산단에 유치하여 중·고가 고강도 경량소재 마그네슘 자동차 양산체제를 구축하였고, 올해에는 보성군 일원에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 가공사업과 지원동을 건립하여 마그네슘 자동차 관련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이렇듯 순천 해룡산단은 마그네슘 경량부품소재를 활용한 중·고가 자진거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가 미래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온 순천 마그네슘 판재산업은 목표의 세련된 산업과 함께 전남 신소재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서 전남 지원 등 너나 할 것 없이 벌였고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 국내최초의 순천 마그네슘판재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도로위 버려진 자동차 체인 타 운전자 위험

지난번에 100년만의 폭설과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결빙 되면 자동차들이 타이어에 체인을 감고 달리게 된다. 체인을 감으면 안정감도 있고 사도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과가 풀러가고 눈이 녹는 시점에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을 보면 운전자들이 사용했던 자동차 체인이 버려져 있는 것은 흔하게 가깝다. 자동차 체인은 전부 다 갈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끼는 아주 위험한 지뢰 역할을 한다는 걸 운

전자들이 알아야 한다. 타이어체인은 보관만 잘하면 3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버려진 체인 중에는 조금만 손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도 많고, 설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해도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설사 3~4년 사용한 것이라서 운전자에 끊어져 못쓰게 됐더라도 반드시 주위다가 가정이나 카센터에 돌려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은펜클럽

목영석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대형마트의 가격인하경쟁이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한 대형마트가 공인했던 '상시 최저가' 품목의 가격을 한 달만에 인상하고, 다른 대형마트도 경쟁업체의 가격인하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래 할인점이라 불렀던 대형마트는 명칭 자체가 가격을 할인해 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바꿔 불려왔다. 십여 년 넘게 성장세를 구가해온 대

모와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심심찮게 벌어진 행사이고,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기업간 경쟁을 그리 나무랄 일도 아니다. 다만 그들이 벌이는 가격전쟁 와중에 넘어지는 납품업체가 생겨서는 안 되고, 삼겹살이며 감자 같은 우리 농축산물에 미개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격인하 상품이 저녁시간과 주말특근을 이용해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

삼겹살과 미끼상품

형마트들은 점포수가 많아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근래에는 4~5% 성장에 머물러 왔다. 소비자양극화의 여파로 저가격 온라인 몰과 백화점의 중간에 끼는 그들은 가격인하라는 승부수를 던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명절을 앞둔 대형마트에는 고객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저곳 경쟁적 가격인하에 소비자들은 즐거워했다. 소비자들의 환호와 달리 전문가들은 가격인하에 의외로 냉담했다. 1~2주일 진행하던 기획행사와 달리, 이전가격보다 훨씬싼 값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는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얘기는 또 다른 것 같다. 사실 대형마트의 가격인하 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3년 주기로 구

면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춰 박리 다매로 공급할 수 있을 테지만 농축산물이 반값에 판매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감자는 소비가 늘어난다고 며칠 만에 생산량을 배가시킬 수 없으며, 삼겹살이 잘 팔린다고 하루아침에 돼지 개체수를 늘릴 수도 없다. 돼지고기 통째로 잡고 감자도 한꺼번에 수확하는데 잘 팔리는 삼겹살, 예쁘장한 감자만 골라 납품받으면 나머지는 할값에 넘겨야 하는 게 농축산물이다. '감'이 감내해주면 모를까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농업인들이 인하된 가격만큼 손실을 떠안을 소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장모래 갈 때마다 사야 하는 1차 식물을 미끼로 매출을 늘리려는 상술도 알망지만 삼겹살 값 몇 천원에 이리저리 물러다니는 소비행태도 농민도 우리 고장에서만큼은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농협중앙회 차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대형차량 먼저 댔던 후미등 추돌사고 부른다

며칠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운전중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내 차가 진행하고 있는 주행차선 앞에서 가던 트럭의 미동이 너무 희미했고 제동등 역시 불이 켜지지 않을 정도로 빛이 약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형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내가 있는 주행선으로 급히 차로 변경하며 끼어드는 게 아닌가. 그 트럭이 내 앞으로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물차의 후미등 부분과 반사경에는 찢든 채와 먼지 등이 묻어 있어서 불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도로 곳곳에 고인 물

로 인해 차량의 후미등이 더럽혀지고 특히 화물차량의 후미등은 승용차에 비해 흙탕물이나 매연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귀찮더라도 운행 전 차량 후미등과 야광반사체에 묻어있는 먼지를 깨끗이 닦아 주길 바란다. 화물차에 추돌을 할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다치지 않고, 또한 차를 추돌한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따르므로 내가 알바 아니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無等鼓 (The Kwangju Ilbo) article about Gongchebi (공적비) with a drawing of a drum and text explaining its significance in public works and social justic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